



1 김영진 목사

소 속 : 서울연회 은평지방 은천교회
 생년월일 : 1955년 4월 18일

기호

학 력

- 1979.2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
- 1987.8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1998.5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박사(D.Min)

목 회

- 1982.7~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은평지방 은천교회 담임
- 1984.3 준회원 허입 (서울연회)
- 1986.3 목사 안수 (서울연회)
- 1988.3 정회원 허입 (서울연회)

경 력

- 1982.6 해군(해병) 중위 제대
- 1991.3~1993.2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은평지방 회계
- 1999.3~2001.2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은평지방 교육부 총무
- 2002.3~2004.2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편집위원
- 2002.10~2004.9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공천위원
- 2003.3~2005.2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은평지방 선교부 총무
- 2004.10~2006.9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
- 2007.4~2009.3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은평지방 감리사
- 2009.10~2012.9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 2012.9~2014.9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 2005.2~2017.12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이사
- 2008.2~2017.12 한국기독교연구소 이사
- 2013.8~2017.8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
- 2007.2~현재 사회복지법인 감리회대화복지재단 은평자활후견기관 운영위원장
- 2015.1~현재 송학감리교회연구소 소장
- 2018.11~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



년 도	입교인수	경상회계 수입결산액	지방 부담금	연회 부담금	본부 부담금	읍급 부담금	신학대학 발전기금	선교활동	
								국내	국외
2016	102	66,315,180	1,094,000	547,000	607,000	1,215,000	182,000	8 3,960,000	
2017	104	80,332,824	1,193,000	596,000	663,000	1,326,000	198,000	3 3,820,000	
2018	102	73,812,010	1,445,000	722,000	803,000	1,606,000	240,000	3 4,020,000	1 50,200,000
2019	94	132,065,506	1,328,000	664,000	738,000	1,476,000	-	3 3,540,000	

맑은 영성, 바른 감리교회, 일하는 리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깨끗한 리더십으로 세상을 이끌고 감리교회 모든 회원과 교회들이 공존하며 부흥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감리교회의 모연회인 서울연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여 38년 동안 오늘의 감리교회의 모습을 누구보다 세세히 알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왔습니다. 지난 10년 감리교회는 성장세를 멈추고 감소기에 들어섰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영적, 행정적 지도력의 부재와 교단의 구조적 문제, 학연과 지연에 따른 분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한 감리교회의 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감리교회 목사로서 침체된 한국감리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교단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으며, 나이가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일하는 감독회장의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이번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 공존과 변화,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

선교 2백주년을 향한 감리교회의 재도약과 부흥을 위하여 목회자 수급과 생활, 은퇴 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건강하고 탁월한 차세대 감리교인들이 양성되지 않으면 감리교회 영광의 역사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감리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역자 기본생활비 보장 (2023년부터)

코로나 상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존하며 번영하는 감리교회가 되려면 감리회 교역자 기본생활비(선교사 포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원 조달 인프라는 많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두어 공청회와 함께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2023년부터 시행토록 하며 이 정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급사업 지속적 안정운영 및 실버타운 건립

교역자 기본생활 대책과 함께 감리회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 은급제도를 보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실버타운 건립도 임기내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영성원을 통한 품격있는 담임목사 양성과 기관목회 · 전문 목회지 확대

영성원 교육을 통하여 감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감리교회의 담임목사는 영성원에서 훈련 받은 목회자가 파송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누구나 신실하고 능력이 있으면 기회를 주도록 하여 변칙세습을 막고 매관매직이 사라지도록 하여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훈련받은 목회자가 기존의 기독교기관 뿐아니라 사회복지 및 교육기관, 공공단체, 직장선교회 등 건강한 기독교세계관과 복음을 들고 사역 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직 목회자의 다양한 사역기회를 열어 주겠습니다.

통합신학대학원 설립으로 웨슬리안 리더십 강화



통합신학대학원 설립은 이미 입법의회에서 결의된 것입니다. 목회자 수급조절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감리교회 목회자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선지사관 학교식 운영> 및 기숙사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전문직 목회자 훈련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참여로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

조선말 일찍 감리회는 선교의 문을 학교와 병원을 통하여 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참여는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을 기도하는 감리교회, 소외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감리회가 되도록 사회구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두어 감리회 가족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공존을 위한 나눔운동, 선제적 방어가 가능한 예매 제도의 운용, 감리회 온라인 방송국 개설, 대사회적 메시지 소통에 대응하는 위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감리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오늘에 와서는 오히려 굳어진 구조의 경직성과 배타성으로 박제화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을 독점한 일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장점들을 부정하며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회의 전통을 회복하고 그 위에 복음적이며 현대적인 공정구조를 세우겠습니다.



재판제도 개정

감리교회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며 사회법으로 가기 전의 요식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비용이 부담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재판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지방·연회재판을 두지 않고 총회에 1심, 2심을 두며, 1심은 감리회에서 공신력을 얻은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전문위원으로 임기제로 하며, 2심은 지금의 총특재와 같은 것이어서 전문 법조인들로만 구성하겠습니다. 재판제도의 개혁은 소송을 쉽게 그리고 정의롭게 하게 하므로 준법정신을 심어주게 될 것이며 그 누구라도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삼권분립 완성과 선거제도 개정

현재 감독회장의 직무와 권한은 너무나 비대하고 광대합니다.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감독회장의 직무에 감독회장이 총회와 입법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총회의 5개 특별위원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명시되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각 기관이 완전한 독립기관이 되도록 장정을 개정하여 삼권분립을 완성하겠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출에 제비뽑기 방식을 포함한 연회장 제도 채택 등을 위한 선거제도특별위원회를 두어 금품선거, 법적 다툼을 포함한 선거후유증을 차단하고 존경받는 감독이 선출 되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2 감독회장-감리교회를 바로 세우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기호



예수를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겠습니다.

- 1) 감리교회 정체성과 공공회성 회복
- 2) 평신도 지도자 양성 및 교육 (직능별)
- 3) 교회학교 발전계획 수립
- 4) 실버교육 실시
- 5) 평신도들의 참여 활성화 (정책자문회, 사회분야 담당 포함)

성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 1) 훌륭한 담임목사 후보를 연령, 학연과 무관하게 훈련하여 개체교회 청빙에 추천함으로써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함
- 2) 개체교회를 위한 선교 프로그램 개발
- 3) 특수목회 및 선교역량 강화 (선교사 포함)
- 4) 목회자 영성 및 윤리의식 강화
- 5) 여성 지도자를 위한 전문교육
- 6) 교회행정 전산 프로그램화



교회를 섬기는 교단이 되겠습니다.

- 1) 본부 행정혁신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홈페이지와 목회서신을 통해 회계 및 활동내역을 상시 보고 하겠습니다.
- 2) 선거제도 개선 (감독 및 감독회장 선출에 대비뽑기 방식을 포함한 연회장 제도 채택)
- 3) 목회자 수급조절
- 4) 교역자 기본생활비 보장
- 5) 은급제도 안정 및 목회자 실버타운 건립
- 6) 정직한 부담금 납부운동으로 부담금 개선
- 7) 감리회 재산 효율적 관리 및 유지



저는 그동안 감리교회의 영적·행정적 지도자인 감독회장이 과도하게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감독회장이 감리회 산하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판공비와 거마비를 신도시 교회개척 기금으로 적립하고, 연봉의 50%를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 저의 진정과 정성이 마중물이 되어 감리교회가 다시 한 번 한국사회를 밝히고 세계복음화에 밑거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진이 답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